

구·동정설명회 주민건의 127건 모여

생활민원부터 숙원사업까지 ‘붓물’ … 추진상황 주민 공개

신년 구·동정설명회에서 남구 발전을 바라는 127건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모였다. 남구는 이 가운데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주민들은 적극 검토해 구정에 반영키로 했다.

새해 남구의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하는 ‘2018 구·동정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1월 23~31일 관내 17개 동에서 열렸다.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정 간부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순회하며 가진 설명회에 동별 주민대표 등 540여 명이 참석해 구정 현안과 발전에 관한 격의 없는 질의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시설 개선, 주차차단속과 주차시설 확보, 교통편의시설 설치, CCTV 설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127건(동현안 29건, 주민건의 98건)의 건의가 쏟아졌다. 건의 사항 가운데 도로·하수 분야가 5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통문제, 건축재개발, 공원녹지, 재해예방, 복지 관련 순이었다. 건의사항에서 예산 확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 구·동정설명회가 지난 1월 23~31일 남구 17개 동에서 열렸다.

■2018 구·동정설명회 건의사항 집계

구분	계	복지	재해예방	공원녹지	교통	도로하수	건축재개발	기타
계	127	4	5	10	20	54	13	21
예산사업	94	4	3	9	16	46	5	11
비예산사업	33	0	2	1	4	8	8	10

보 및 집행이 필요한 예산수반 사업은 94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주민건의 가운데는 부산의국어대학교 부지 활용방안과 용호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 대책, 용호 시사이드 개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 등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주

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문현초등학교 인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에 문현동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구는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정리해 해당 부서별로 계획과 처리결과 등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구·동정 설명회 건의·답변 5년 게재

“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시민공감대 필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구군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8일 남구를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현장 소통 토론회 행사를 위해 남구를 찾은 지 40일 만의 재방문이다.

서 시장은 주민과의 만남에 앞서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지를 찾아 소파마을복원과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우암동을 처음 방문했다는 서 시장은 “시장 임기 동안 부산의 전체

서병수 부산시장 남구 방문 주민과의 대화서 밝혀

“하 안토니오 신부 흉상·기념비 건립 남구와 협의”

205개동 순회를 다 할 계획인데 오늘 우암동은 192번째인데 마을의 역사성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구는 현재 소파사 한동을 매입해 원형보존공간, 피란민 거주정착기 전시공간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어 유엔평화기념관과 3

층 컨벤션홀에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와 덕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남구문화원 김철 부원장이 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설치할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암동의 주민은

지난해 10월 선종한 하 안토니오 신부를 기념할 수 있는 흉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인 선교사인 하 안토니오 신부는 1959년부터 60년 가까이 우암동 동항성당에 머물며 빈민구제사업을 펼쳤다.

서 시장은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한 건의에 대해 “동백섬쪽 교통문제가 난제다. 부산시민의 의견이 모여 제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안토니오 문시를 흉상 건립과 관련하여서 “남구청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엔기념공원에 활짝 핀 ‘붉은 봄’

유엔기념공원의 홍매화 두 그루에 봄이 활짝 피었다. 이들 홍매화는 남에서 가장 먼저 매화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매화 나무는 꽃꽂이 예술단체인 일사귀회 문상인 최정아씨가 2002년 직접 심었다. 매년 홍매화 꽃이 만개할 때쯤 회원들이 홍매화 아래서 차를 올리는 헌디식을 연다.

남구 안전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남구는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관내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진행 중에

있다. 2월 5일~3월 30일 해빙기 50일간 다중이용시설, 교량,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급경사지 등을 집

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구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총괄기획팀, 현장점검팀, 상황관리팀 등 3개 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안전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생활안전숙 안전 위험요소 신고가 가능하며, 자율방재단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설물 안전법상 C등급 시설, 해빙기 위험시설 등 사고 발생 위험분야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2018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국 위험시설 6만 개소와 공공시설 14만 개소, 사유시설 등 총 30만 개소의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월 제264호 1면 ‘남구인구 30만명 회복…지역 경기 활력 기대’ 제목의 기사에서 대연파크푸르지오와 대연SK VIEW Hills의 위치가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대연파크푸르지오는 대연4동 당곡공원 아래, 대연SK VIEW Hills는 대연5동 남구도서관 옆’으로 바로 잡습니다.

2018 구민 나눔장터

3월 2일(금) 10:00~16:00
신청 : 청소년행진과☎607-4451)
※ 우천 시 3월 9일로 연기



제1회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제정 결의 대회 및 안성녀 여사 독립유공자 서훈 인증 선포식에서 맑은소리시낭송예술인협회 회원들이 시극 ‘안중근 의사를 아십니까?’를 공연하고 있다.

안성녀 여사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움직임

(안중근 의사 여동생)

유족들 청와대 국민청원·서명운동 전개

항일운동 자료 없어 백운포에 묘소 방치

백운포 천주교묘지에 묻혀 있는 안성녀 여사(안중근 의사 여동생)의 국가유공자 서훈 촉구 움직임이 유족과 안중근 의사 추모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사)안중근의사교역문화재단과 (사)안중근의사정신문화협회는 지난 14일 대연동 유엔평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및 하 안성녀 여사 독립유공자 서훈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2월 14일은 1910년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일본 법정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안 의사는 이날 사형선고를 받고 42일 뒤인 3월 26일 위순감옥에서 사형 집행으로 순국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안 여사의 친손자인 권혁우(대연동 거주) 광복회 부산지부부부연합 지회장은 안 여사

의 항일운동 내역과 서훈 인증 촉구문을 남독하고 참석자 내빈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사)안중근의사교역문화재단과 유족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 여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청원해 놓은 상태다. 안 여사의 국가유공자 서훈 지정 촉구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여사는 오펜 안중근의 거사로 일제의 보복을 피해 30여 년간 만주 등지로 망명하다 해방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6·25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생활하다 숙환으로 1954년 별세했다. 처음 영도청학동에 묘를 세웠다가 묘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1974년 천주교묘지로 이장했고 세인들의 관심에서 떨어져 40여 년동안 방치되어왔다. 지난 2016년 8월 남구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 비석과 상석을 바꾸고 묘소 주변에 참배객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권 지회장은 “할머니 안 여사는 할아버지와 함께 양복점을 운영하며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거나 독립자금 등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어릴적 부모님에게서 들었다”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박해를 받던 일제강점기에 안중근의 가족이었다면 그 핍박이 얼마나 지독했을까를 유추하고도 남지 않느냐”고 말했다.



3월 1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가정에서는 3월 1일(목)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단다

지방세 환급금으로 이웃돕기 기부하세요

남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줄여 통지서 발송 등 행정력·예산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남구는 환급금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환급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뒤 모바일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모바일팩스 전송이 여의치 않은 경우 환급금당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보내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

랑의 열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신청서는 남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에서 민원안내→민원편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607-4235

관객 기립박수, 연극 ‘이기여~의기여!’ 상설공연

올해 총 12회… 3월 22일, 23일 부산예술회관 무료 관람

지난해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연극 ‘이기여~의기여!’가 상설 공연 무대로 오른다.

뮤지컬 형식의 연극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기대 두 기녀의 이야기를 기본 뼈대로 역사적 고증과 문학적 상상력을 입혀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남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을 끌어들여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녀의 설화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이기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연극을 11월까지 총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오후 1시, 오후 5시 하루 두차례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다. 4~7월은 제7회 지방선거로 공연은 하지 않는다. 무료관람이며 단체관람은 사전 접수해 해야 한다. 이번 상설 연극은 남구에서 주최·주관하고 남구에서 활동 중인 연극

인들(남구연극회)이 무대에 오른다. 2017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연극 ‘이기여~의기여!’는 지난해 9월 부산예술회관대강당에서 두 차례 공연됐다. 두 회 공연 모두 매진과 기립박수가 터졌다. ☎607-4064



• 일 시 2018. 3. 2.(금) 15:00~19:00

• 장 소 백운포 체육공원

• 프로그램

—식전행사 : 풍물팀 공연, 오목도여성합창단 공연
—본 행사 : 축하공연, 기원제, 달집태우기, 어울림 한마당
—부대행사 : 소원지 적기, 부림 나눠주기, 소망풍선 나눠주기, 운세보기, 전통놀이 체험, 먹거리 장터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